

치사

종단의 미래를 여는 개혁정신

역사는 인간이 거쳐 온 모습이나 그 행위로 일어난 사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한 기록이라고 정의합니다. 작게는 한 사람의 인간사에서부터 크게는 국가와 인류가 남긴 지난 시대의 기록을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록되지 않은 사실들은 역사가 될 수 없으며, 후손들에게 아무런 교훈도 줄 수 없습니다.

한국불교 전통을 오롯이 계승한 우리 조계종 역시 종단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통합종단 출범으로 현시대로 일신일진(日新日進)하면서도 1600년이 넘는 한국불교의 역사가 모두 담겨 있는 것이 우리 종단의 역사입니다. 이와 같은 유구한 조계종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대에 일어났던 중요한 일과 사건을 객관적으로 기록하여 후대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깨달음과 증생구제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불교의 특성상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일로 생각되어 온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논란이 있거나 과오에서 시작된 일에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우리 종단의 굴곡진 현대사를 기록하는 것이 내키지 않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 이유로 종단의 현대사를 기록하는 일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난 94년 종단 개혁불사의 전 과정을 정리한 백서를 출간하게 된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94년 종단 개혁을 통해 종단의 역사를 새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국가권력의 부당한 간섭과 공권력의 폭압을 물리치고 10.27법난의 치욕을 씻어냈고, 권력의 독점과 운영의 난맥상에 종지부를 찍고 종단의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94년 이른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우리는 모든 종도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종단의 새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대중공의에 기반하여 수행과 포교, 교육에 역점을 두는 종단 운영 구조를 확립하였습니다.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한 3권의 분립에서부터 효율적 행정의 운영을 위한 3원의 설립에 이르기까지 개혁불사를 통해 이루어진 조계종의 새로운 체계는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반 위에서 시대와 역사에 부응하는 새롭고 활기 넘치는 불교로 나아가는 길을 열었고, 지난 20년 동안 엄청난 발전과 중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적 개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94년의 개혁불사가 우리 종도들에게 ‘개혁정신’을 새겨주었다는 것입니다. 부당한 간섭에 굴복하지 않으며, 부패한 권력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정법수호와 파사현정의 실현이며, 94년 개혁불사가 우리에게 심어준 개혁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의 실현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정법종단의 구현, 불교 자주화 구현, 종단운영의 민주화, 청정교간의 구현, 불교의 사회적 역할 확대라는 5대 지표입니다.

20여년이 흐른 지금 개혁정신의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찰과 종단규모가 확대되고 발전하면서 이에 따르는 다양한 부작용 또한 적지 않으며, 불교정신에 대한 느즈러진 마음가짐을 경책하고 대중공의의 전통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는 지적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찰과 종단의 공영화는 실제적 실천에 박차를 가해야 하고 민주적 운영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지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94년 개혁의 정신과 그 교훈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제시한 5대 지표에 부합하는 종단운영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종단 개혁백서를 발간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금석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제도와 조직에 완전무결한 것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완전무결한 개혁도 없습니다. 개혁의 정신과 역사를 판단의 기준으로 미비점과 개선점을 찾아 내어 끊임없이 바꿔 나가는 것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이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잊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94년 개혁의 정신과 그 역사를 망각하는 그 순간, 과거의 과오는 되풀이 될 것입니다.

종단 개혁불사는 94년 당시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2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어지는 우리 종단의 대작불사입니다. 모든 종도가 한마음으로 94년 개혁불사의 정신을 계승하고 종단의 밝은 미래를 향해 새롭게 나아갑시다.

불기2560년 3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